

2021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 선정 매체 공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비평 인력 전문화와 미술 담론 활성화를 위하여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보의 매체형 신청 접수가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된 매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매체명	선호 분야	희망 주제	게재 기간
지면매체 (오프라인)	아트인컬처	주제비평	동시대 미술의 담론을 제시하는 자유 주제	~2021.2.28
	전시가이드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자유 주제	
	월간도예	작가론, 주제비평	1. 담론 없는 공예 현실 논박부터 공예 담론의 진정한 의미 발견까지 2. 문화예술의 공예 vs 순수예술의 공예 3. 시대가 원하는 전공 분야 vs 도자조형(순수 창작)의 전공심화, 대학교육계의 과제와 방안 모색 4. 비평가가 제안하는 자유주제	
	사진예술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자유 주제	
	퍼블릭아트	주제비평, 전시비평	1. 미술의 소장: 동시대 현대 미술 소장에 대한 담론 제시 2. 온라인 플랫폼 이미지: 비대면 시대의 영향으로 증가된 온라인 플랫폼 속의 수많은 이미지의 저장과 관리	
	서울문화투데이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시	
	월간미술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자유 주제	
지면온라인	투데이신문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자유 주제	
온라인	서울아트가이드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자유 주제	
	세미나 (SEMINAR)	주제비평, 전시비평	법과 페미니즘 문학과 시각예술 : ‘법’으로 표상되고 의미화 되는 ‘권력과 체계의 문자/언어’가 여성주의적 상상과 경험을 마주해 일으키는 파열의 지점을 조명한다.	
	우드플래닛	주제비평, 전시비평	현대공예와 순수미술의 동시성과 차별성 분석	

■ 매체 소개

번호	매체명	소개
1	아트인컬처	매체 소개 (http://www.artinculture.kr)
		아트인컬처(Art In Culture)는 한국 동시대미술편을 대표하는 월간 미술 전문 잡지입니다. '잡지 역시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 장르, 담론 등을 가로지르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필진의 협업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눈, 살아 있는 미술저널"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0월 창간해 지난 20여년간 아트인컬처는 미술현장을 면면히 기록해 매달 한 권의 책으로 담아, '종이 언론'의 아카이브적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아트 저널리즘에 특화된 아트인컬처의 에디터십은 기획력과 완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트인컬처는 매달 국내외 주요 미술인이 필자로 참여해, 전시평론, 아트신의 생생한 정보와 동향 비평 및 전망, 동시대미술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기획 연재와 에세이 등을 싣고 있습니다.
2	전시가이드	매체 소개
		월간 전시가이드는 2006년 5월에 창간하여 현재 180호를 발행하였으며, 전국 미술관에서 매월 열리는 전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인 미리보는 전시와 더불어, 평론 및 기획기사, 전국 갤러리 색인, 전국 갤러리의 지역별 전시일정, 미술계 뉴스 및 공모전 소식, 갤러리 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미술관련 언론사에서는 전시기사 소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전국 회원갤러리 및 인사동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월간 전시가이드는 전시 미리보기 및 기획기사, 전시평론, 작가 및 작품론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합니다. 매월 전시에 앞서 기사화된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전시를 주최하는 갤러리나 작가에게 전시회를 미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술전시 전문지입니다.
3	월간도예	매체 소개 (http://www.cerazine.co.kr)
		○ 매체/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 월간도예는 국내 도자문화 예술의 인식과 수준을 넓히기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다루고 있는 특정 시각예술 장르 도예계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사를 비롯해 이달의 주목할 만한 작가, 작품 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 불만만 전시와 행사,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 내 칼럼, 유용한 정보와 소식들 등 도예계의 골격이 되는 관련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본지는 도자예술 전문지로서 심도 깊은 기사와 인터뷰, 건설적인 논조의 비평과 평론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업계 안팎의 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도권 체제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나 매체 자체의 여러 제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며,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진 글 또는 독자의 피드백과 소통이 있는 기획 기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매체 소개 회사명:(주)월간세라믹스 잡지명:월간도예 창간일: 1996년 4월 1일 통권: 302호 발간 페이지수: 약 120페이지 가격: 12,000원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2021, 2020, 2019, 2017, 2014, 2006												
		제공 지면 소개 <table><tr><th>선호 분야</th><th>제공 섹션</th><th>지면 주제 및 내용</th><th>지면</th></tr><tr><td>①주제비평</td><td>쭈민/칼럼</td><td>도예 관련한 주제 비평 및 담론</td><td>6~8p</td></tr><tr><td>②작가론</td><td>이달의 작가</td><td>흙을 주된 재료로 작업하는 도예작가의 작품세계 소개 작품 주제와 기법, 작업적 배경과 맥락 설명 필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술관/예술가를 탐구한 의도 명시</td><td>6~8p</td></tr></table>	선호 분야	제공 섹션	지면 주제 및 내용	지면	①주제비평	쭈민/칼럼	도예 관련한 주제 비평 및 담론	6~8p	②작가론	이달의 작가	흙을 주된 재료로 작업하는 도예작가의 작품세계 소개 작품 주제와 기법, 작업적 배경과 맥락 설명 필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술관/예술가를 탐구한 의도 명시	6~8p
선호 분야	제공 섹션	지면 주제 및 내용	지면											
①주제비평	쭈민/칼럼	도예 관련한 주제 비평 및 담론	6~8p											
②작가론	이달의 작가	흙을 주된 재료로 작업하는 도예작가의 작품세계 소개 작품 주제와 기법, 작업적 배경과 맥락 설명 필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술관/예술가를 탐구한 의도 명시	6~8p											
4	사진예술	매체 소개 (www.photoart.co.kr) 월간 「사진예술」은 1989년 5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매달 발행하고 있으며, 사진계의 원로 이신 이명동 선생이 창간하셨습니다. 1992년에는 제1회 공보처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 1997년에는 한국잡지언론상 편집상을 수상했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는 등 권위 있는 사진잡지로서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사진예술」은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큐멘터리부터 파인아트, 패션, 연출 사진 등 국내외 사진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전문 필진의 기고, 기획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동시대 사진예술을 바라봅니다. 사진은 더 이상 기록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동시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시각예술로, 사진에 대한 매체 비평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 예술의 지형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읽기’입니다. 「사진예술」은 이런 사진예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비평을 통해 국내 사진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공 지면 소개 「사진예술」은 2018년 연간기획은 사진 분야에 조화가 깊은 전시기획자의 관점에서 본 장르, 이즘(ism), 주제, 소재 등을 바탕으로 공통점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는 ‘지상 기획전’을 연재했습니다. 2021년 연간기획은 ‘사진의 명저’로 각 대학교 박사학위 이상의 교수가 사진의 역사에 나타난 주요 서적들을 중심으로 연재합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정훈 교수가 ‘20세기 사진의 역사’를 연재합니다. 이는 사진의 매체적 역량과 가능성을 심화시킨 전위적인 사진가들의 시대였던 20세기의 사진적 흐름을 재맥락화하												

		기 위함입니다. 사진예술은 외부 필진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기반으로 한 심도 깊은 전시 비평글과, 하나의 주제를 통해 고전부터 현대까지 사진예술의 흐름을 짚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의 기획 및 비평을 통해 동시대 사진예술의 지형을 읽어내려 합니다.
5	퍼블릭아트	매체 소개 (www.artinpost.co.kr) 월간 「퍼블릭아트」는 2006년 10월 창간한 문화예술전문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온 컨템포러리 매거진으로써 예술성, 전문성, 공공성, 대중성을 함유해 미적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발간된다. 난해한 텍스트 위주에서 탈피해 필자의 다양화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폭을 확대하고, 타 매체와의 변별성 유지를 위해 콘텐츠, 비주얼 아이템 차별화를 지향해오고 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독자들과 교감하고, 시각예술 콘텐츠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통권 176호(2021년 5월 기준)를 발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09 ‘우수 잡지’, 2014, 2017, 2018 ‘한류번역지원 잡지’,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제공 지면 소개 CRITIC / COLUMN 본지는 현대미술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신선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를 통해 월간 「퍼블릭아트」는 미술 현장을 관통하고 시의성을 반영하는 필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원고는 필자의 시각과 편집부의 기획 방향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6	서울문화투데이	매체 소개 (www.sctoday.co.kr) 서울문화투데이(사과나무미디어그룹)는 지난 2008년 창간된, 순수예술 분야를 다루는 전문 매체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격주 종이신문-대판 20면)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어 기사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높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물론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된 예술인들을 발굴,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예술세계를 심도있게 소개하고, 각 장르 전문가들의 칼럼 연재로 독자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언론으로서 사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과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시 공연 소개 등 독자들을 문화예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를 심층 취재하는 한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하는 언론의 정도를 견고하고 있다. 제공 지면 소개 시각예술 분야의 회화를 비롯하여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공예, 조명예술 등 전 장르를 다루고 있으며, 지면의 9면 전시미술 페이지와 10면, 17(19)면 에 고정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지면을 통해 작가 인터뷰와 기획기사, 전시리뷰 등을 매호 게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도 동시 게재함으로써 기사의 파급효과가 높다.

7	월간미술	매체 소개 (http://www.monthlyart.com)
		《월간미술》은 1976년 창간한 《계간미술》의 맥을 이어 국내 예술 저널리즘의 방향을 이끌어 온 미술잡지입니다.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2020년에는 국방부 정서함양도서로 선정되어 전국 각 부대 도서관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일반 독자층에게 미술 지식을 전하는 대중잡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더욱 폭넓은 독자층과 소통하고 예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월간미술》은 앞으로도 국내외 미술계의 창작과 수용의 가교로서 미술 공론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제공 지면 소개
8	투데이신문	〈Art Forum〉 연구자가 제시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원고(비평, 좌담 등 다양한 형식)를 실을 예정입니다.
		매체 소개 (http://www.ntoday.co.kr)
		투데이신문은 ‘내일을 여는 오늘’이라는 슬로건으로 퀄리티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뉴스스탠드 제휴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고 이밖에 다음, 구글 등 모든 포털과의 뉴스검색 제휴를 통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 폼 & 슬로우 저널리즘(long-form & slow journalism)을 지향하며 다양한 시각의 독특한 기획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 독자들은 물론 미디어 관련 매체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수차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콘텐츠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반증의 결과입니다.
9	서울아트가이드	아울러 투데이신문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과 동시에 문화, 예술에도 큰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신춘문에 공모전’을 통해 쇠퇴하는 인문학 부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울러 ‘투데이 아틀리에(Today’s Atelier)’라는 섹션에서 미술계 소식을 꾸준히 다루므로써 미술문화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미술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투데이신문은 온.오프라인 뉴스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현재 ‘투데이 아틀리에(Today’s Atelier)’라는 섹션을 통해 전시, 축제 등 미술계 소식과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직격인터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근의 이 작가를 주목한다> 라는 꼭지는 미술평론가가 들려주는 작가론과 작품론을 독자들이 쉬운 언어로 체득할 수 있게 합니다.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결집된 미술비평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국 미술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신진작가들’의 내면과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매체 소개 (www.artguide.kr)
		온라인 서울아트가이드는 2002년 9월 daljin.com으로 첫 오픈 되었고 2004년에 인명사전을 보강하며 1차 개편 2013년에 단행본 간행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2차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artguide.kr 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발행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연재 종료된, 현재 연재 진행 중인 칼럼전체를 독자에게 로그인 없이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비롯한 미술계 관련 다양한 소식과 동정을 수집하여 방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술계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나가야 할 점에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근현대사화에서부터 동시대예술까지 폭넓은 관심사를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 지면 소개 2021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 매칭 원고는 달진닷컴의 칼럼 > 연재칼럼 > 스페셜 칼럼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스페셜 칼럼은 미술계 내외의 전문가로부터 그동안 주목해온 미술 현안과 단상에 대하여 게재하는 칼럼입니다. 미술계 현장에서 교류했던 작가에 대한 에세이부터 미술관에서 점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디오가이드에 대한 주목까지 2003년 8월호부터 2021년 5월호까지 157회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세미나	매체 소개 (www.zineseminar.com) 2019년 창간한 시각문화예술 웹 저널 <세미나(SEMINAR)>는 페미니즘과 퀴어와 같이 한국 미술의 타자적이며 포용적인 동시에 실험적인 시각들을 소명하고자, 동시대 미술 비평과 담론의 새로운 지형을 지속해서 호출하고 생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세미나>는 기술과 페미니즘(1호), 퀴어와 미술(2호), 제3세계 페미니즘(3호), 생명정치와 재생산(4호), 질병과 비이성(5호), 몸/육체성과 재현(6호), 과학기술과 젠더(7호)를 주제로, 페미니즘 미술 등을 둘러싼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와 작품들을 조명해왔다. 또한, 심도 있는 작가 인터뷰와 전문 필자들의 글을 통해 한국 시각예술의 지적 비판성과 탐구의 현재를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 외에도, 해외 페미니즘 아티스트 그룹과의 교류의 성과인 <제노페미니즘> 번역서의 출간 기념 북토크와 세미나, 그리고 퀴어 미학과 윤리, 식민성, 소수자 존재론, 사변적 픽션 등 시의성 갖추며 웹 저널의 주제에 부합하는 작가/큐레이터 토크와 강독 세미나, 또한 그간 참여해온 필자를 초대하여 <세미나>의 발간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능해보는 토론 등 여러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앞으로도 <세미나>는 세대, 국가, 젠더를 아우르는 여러 예술가, 비평가, 활동가들의 구심점으로서 자리하며, 페미니즘 등 확장하는 예술 담론을 심화시키고, 여러 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미술 실천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추구해나가고자 한다. 제공 지면 소개 1년에 3회(호)로 공개되는 <세미나>는 각 호의 주제에 맞춘 작가 인터뷰 국영문 페이지와 이론 연구자, 현장 활동가, 큐레이터, 작가 등 여러 포지션의 필자들의 논지를 담은 아티클, 작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작가적 리서치 중심의 텍스트 생산을 촉진하는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외에는, 아티클과 에세이, 이론가와 작가와 같은 글의 성격과 필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각 글의 제목과 순서를 편집하고 있다. 때때로 아티클과 에세이에는 제기하는 문제에 호응하는 작품 이미지를 새롭게 찾아 삽입하여 이론과 작업을 연결하는 기획을 해왔다. 이와 같이, 위계나 구획 없이 지적으로 평등하며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세미나>의 지면은 페미니즘 미술 등 기존의 담론의 권위에 도전해왔던 미술 실천과 비평의 아카이브로도 또한 기능한다.

		웹진 <세미나>의 발행/편집팀의 이름 ‘아그라파 소사이어티’는 스페인어 ágrafa는 ‘문맹의, 문법 체계 없는’을 뜻하는 형용사의 여성형 단어에서 유래했다. <세미나> 9호 (2021.10. 공개 예정)는 말 그대로, ‘법 없는 언어’의 가능성을 페미니즘과 퀴어의 관점에서 타진해보고자 한다. ‘법’으로 표상되고 의미화되는 ‘권력과 체계의 문자/언어’가 여성주의적 상상과 경험을 마주해 일으키는 파열의 지점을 집중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버틀러가 “안티고네”에서 구원했듯, 명령하는/법으로서의/아버지의 언어에 저항하는 여성의 언어가 진술문을 넘어 발화되고 수행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혀보는 논지를 소개한다. 법이라는 언어의 규약성과 논리성의 허위를 반문하고, 다소 고전적 주제이지만 최근의 미술과 문학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시에서 드러났던 남성적 헤게모니를 간파하여, 문학과 미술, 문자와 여성, 텍스트와 페미니즘, 그 사이의 여성 문학(가)와 시각예술(가)을 조명하는 에세이와 비평, 연구를 수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 페미니즘, 퀴어, 또 다른 비가시적 몸들을 둘러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법의 문제에 얽힌 쟁점을 전달하고, 이러한 실천의 장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예술작품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필자들의 진단을 담아본다.
11	우드플래닛	매체 소개 (www.woodplanet.co.kr) 우드플래닛은 2012년 3월에 창간하고 현재는 네이버, 다음의 뉴스 미디어 검색 언론으로 등록된 국내 유일의 공예 매체다. 공예 전반은 물론 공예적 관점에서 건축과 디자인 관련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시와 작가 소개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를 하고 있다. 향후 공예 전문 평론가를 발굴, 진단 및 해석 글로 작가와 작가세계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공 지면 소개 현대공예가 공예 본류의 기능보다 조형성과 작가성을 근간으로 예술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미술 관점에서의 배타적 논리와 수용적 근거의 논점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대한 평론을 통해 현대공예의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공예 : 공예전반에 대한 일반 기사 및 심층 기사 소개 칼럼 : 공예 및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 평론가의 글 게재